

5/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

심정명



오사카 신세카이의 거리 풍경

심정명(沈正明)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비교문학 협동과정에서 석사 학위를, 오사카대학에서 내셔널리즘과 일본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서로 『스트리트의 사상』, 『유착의 사상』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3.11과 전후의 끝, 무의미한 죽음과 애도의 문제」, 「3.11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오키나와, 확장되는 폭력의 기억: 메도루마 슌의 『무지개 새』와 『눈 깊숙한 곳의 숲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2-B00006).

1. 들어가며

“하지만 이 마을, 정말로 언젠가는 소멸해버릴까요?”

지아키가 중얼거렸다.

“아마 그렇게 되겠지.”

마사토가 말하자 두 젊은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철수하는 농촌 계획을 추진하는 연구자 단체도 있어. 공동체가 붕괴되고 약자만 뒤에 남겨지기 전에 촌락에서 철수해서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이사한다는 생각이지.”

“이 마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라고 해봤자 도쿄 같은 대도시는 아니야. 산기슭에 있는 동네든지, 아니면 안자이 시 서쪽에 콤팩트 시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곳으로 이주할 때가 언젠가는 올지 모른다는 거야.”

“콤팩트 시티?”

“그래. 슈퍼니 병원이니 우체국이니 하는 것이 전부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동네야. 노인들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이겠지.”

“마사토 씨는 그런 장소로 이주하고 싶습니까?”

지아키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추궁했다. 마사토는 잔에 소주를 따르고는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꿀꺽 마셨다.

“아니. 여기는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이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뼈를 묻고 싶어.”¹

2015년 NHK에서 드라마화하여 방송하기도 한 소설 『한계촌락 주식회사』의 한 장면이다. 여기서의 근래 ‘지방’을 둘러싸고 나왔던 이야기들의 조각조각을 확인할 수 있다. 소멸, 철수하는 농촌 계획, 콤팩트 시티, 그리고

1 黒野伸一, 『限界集落株式会社』, 小学館, 2013.

“여기는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이라는 감정.

먼저 ‘지방 소멸’. 2015년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던 『지방 소멸』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에 523곳에 이르는 소멸 가능성 시정촌의 목록을 공표하는 데까지 나아간 이른바 「마스다(増田) 보고서」를 취합²하여 도쿄(東京)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20~39세 가임기 여성의 감소가 지방자치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³ 정부는 이미 ‘지방 창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⁴ 곳곳에서 다양한 지방 재생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철수’와 ‘컴팩트 시티’.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각종 재생 방안을 비판하고 나온 『지방 재생의 실패학(學)』에서는 공공시설물(箱物)을 세우거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중에는 한계촌락이나 소멸촌락의 자발적인 이전이라는 ‘철수하는 농촌 계획’(撤退の農村計画)연구소의 하야시 나오키(林直樹)의 방안도 포함된다.⁵ 그리고 성공적인 지역 재생의 모델로 꼽히는 후쿠이(福井) 현의 사례를 조사한 『후쿠이 모델』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는 … 즐거운가, 맛있는가, 세련됐는가”라고 제안하는 모리 마사시(森雅志) 도야마(富山) 시장은 포트랩을 통해 중심부의 거주 구역을 떡꼬치처럼 연결하는 컴팩트 시티를 구상하여 전입이 전출을 초과하는 인구 유지력을 유지한다.⁶ 물론 컴팩트 시티는 조닝(zoning) 정책이므로 사람들을 실제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데, 모리에 따르면 여기서는 ‘편리함’과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게

2 마스다 히로야·인구감소문제 연구회, 『괴사하는 지방도시』; 일본창성(創成)회의 인구감소문제 검토분과회, 『성장을 계속하는 21세기를 위해 「스탑 소자화(少子化)·지방 활기 전략」』; 마스다 히로야·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 검토분과회, 『스탑 인구 급감 사회』.

3 増田寛也,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央公論新社, 2014.

4 「마스다 보고서」의 공표 시기와 정부의 움직임이 연동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보고서 자체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아베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오다기리 도쿠미(小田切徳美)의 『농촌은 붕괴하지 않는다』도 참조. 그에 따르면 ‘지방소멸’론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제시한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과 같은 방식으로 급진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소멸이 예상되는 목록에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을 정리하는 정책의 움직임과 연동할 수 있다. 小田切徳美, 『農山村は崩壊しない』, 岩波書店, 2014.

5 飯田泰之·木下斉, 『地方再生の失敗学』, 光文社, 2016.

6 藤吉雅春, 『福井モデル: 未来は地方から始まる』, 文藝春秋, 2015.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즉 걸어서 슈퍼마켓이나 병원, 공원이나 도서관에 갈 수 있다는 편리함과 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일정권 내로 이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득 말이다.

『한계촌락 주식회사』는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 산간에 있는 작은 농·산촌인 도도메무라(止村)는 인구 과소화로 인해 전체 가구 수가 마흔이 되지 않는 곳으로, 시정촌(市町村) 합병 결과 행정상으로는 이미 산기슭에 있는 마쿠에쓰(幕悅) 마을의 일부다. 하지만 주민들은 진료소와 우체국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버스도 끊기고 수해(獸害)도 발생하는 도도메무라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고, 마쿠에쓰 마을의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주민들이 기슭으로 이전해 오지 않는 것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도쿄에서 기업 컨설턴트 일을 하던 주인공은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버지의 고향인 도도메무라로 왔다. 농업 진흥을 통해 마을을 재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엔터테인먼트화되어 있기는 해도, 마을을 경영한다는 관점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다각도로 합리화하는 주인공의 시도는 확실히 민간 주도형 지역 활성화의 예라고 할 만하다. 물론 그 성공에는 농업을 배우기 위해 도도메무라에 와 있던 만화가 지망생이 흠집 난 채소를 캐릭터화해 그린 ‘채소 쓰레기’ 만화가 도쿄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 한몫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줄거리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머잖아 없어지겠지만 이 마을과 밭은 남아 있기를 바란다”라는 도도메무라 노인들의 바람에 잘 나타나는, 합리성이나 효율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고 자란 마을”에 대한 애착이다.(강조는 필자)

지방이라는 공간을 그저 풀어야 할 과제나 중앙 재정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혹은 『지방소멸』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지방의 중핵 도시를 중심으로 농·산촌을 콤팩트하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생활감정일 것이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큰 지역의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중소 규모의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물론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자율에

말겨야 한다고 많은 논자들이 덧붙이지만, “일을 한다면 고향에 돌아와서 하자라는 ‘22살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늘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스다나 어두운 미래가 예측되는데도 비용이 드는 지방의 공공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가들을 ‘도태’시키기 위해 소멸 가능성 도시 목록을 침투시키는(단순히 공표하는 것을 넘어 이 목록 자체를 ‘침투시켜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정치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의 말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수도권과 농·산촌 사이에 있는 적정 규모의 도시에 머물러 있어 주기를 바라는 편익주의적인 사고가 엿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인구 감소나 격차 확대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해결하거나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⁷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방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한계촌락 주식회사』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벽촌만이 아니라 대도시인 오사카(大阪)나 후쿠오카(福岡)를 포함한 다른 모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푸른 불꽃』(靑の炎)의 주인공 소년이 로컬 열차인 에노덴(江ノ電)과 경쟁하며 자전거로 달리는 쇼난(湘南) 해안선을 따라 난 국도와 후지사와(藤沢)역 앞의 풍경, 모리미 도미히코(森見登美彦)의 여러 소설에 나오는 가모(加茂)강 델타와 교토의 밤거리를 달리는 에이덴(叡電), 고독한 소년이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패럴렐 월드로 가는 계기가 되는 『보틀넥』(ボトルネック)의 도진보(東尋坊) 절벽 등, 지방을 배경으로 한 많은 소설은, 그 지방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을 상상하며 장소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한다. 문학 작품이 장소의 경험에 가시성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는⁸ 예는 지방을 무대로 한 소설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7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역’이나 ‘재생’과 같은 말의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도시에 통근 및 통학하는 일정 이상의 인구가 있는 주변 지역을 합쳐서 지역이라 본 뒤 이러한 지역의 평균 소득이 향상되는 것을 ‘재생’이라 부름으로써 논의를 시작하는 『지역 재생의 실패학』일 것이다.

8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62~263쪽.

소설은 지방을 둘러싼 현재적인 관심과 어떠한 방식으로 만날까?

이 글에서는 특히 인구 절벽과 극점(極点) 사회라는 위기의식을 거치며 근래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공간을, 이러한 문제의식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접속하며 그려내는 소설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은 바로 ‘도쿄’라는 특별한 공간이다. 먼저, 지방도시의 삶을 도쿄라는 비교 항을 통해 그려내 화제가 됐던 아마우치 마리코(山内マリコ)의 소설집 『여기는 지루해, 데리러 와줘』(ここは退屈迎えにきて)를 읽음으로써 이른바 ‘패스트 풍토’(ファースト風土)론을 중심으로 지방의 현재 풍경을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앙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関東) 지역을 비교 항으로 놓고 동과 서라는 구도를 자임해온 간사이(関西) 지역의 교토(京都), 나라(奈良), 오사카(大阪)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많이 써온 마키메 마나부(万城目学)의 『프린세스 도요토미』(プリンセス・トヨトミ)는 오사카국(大阪国)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중앙에 대한 지방이라는 구도를 의식적으로 부각시킨다. 실제 오사카는 글로벌한 대도시지만, 서민적인 성격이 강한 상점가를 중심에 놓고 도쿄와는 다른 고유한 지방성을 띤 장소로서 오사카를 그려내는 이 소설을 통해 행복하고 자기완결적인 지방을 상상하는 방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 도쿄가 없는 세계

『여기는 지루해, 데리러 와줘』는 한 지방도시에서 살아가는 각각의 등장인물을 다룬 8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배경은 작가의 고향인 도야마시로 추측되지만, 사실 그곳이 어디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 단편인 「우리가 대단했던, 영광의 이야기」는 도쿄에서 일하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고향에 돌아와 타운 잡지에 글을 쓰고 있는 서른 살 여성이 주인공이다. 같은 잡지사에서 프리랜서 카메라맨으로 일하는 스가(須賀) 또한 10년 동안 도쿄에 있다 고향으로 이른바 U턴한 인물로, 주인공인 ‘나’와는 어

편지 마음이 맞는다.

취재를 마친 차는 해질녘의 바이패스를 달린다. 긴 강처럼 어디까지나 이어지는 간선도로, 행렬을 이룬 차는 때때로 브레이크 램프를 일제히 붉게 밝히고 길 양편에는 조명을 켜 체인점의 거대한 간판이 끝없이 이어진다. 북오프, 하드오프, TSUTAYA와 한 세트인 서점, 도쿄 구두 유통 센터, 양복의 아오야마, 신사복 하루야마, 유니클로, 시마무라, 니시마쓰야, 스튜디오 앨리스, 게오, 다이소, 니토리, 고메리, 고지마, 코코스, 가스토, 빅보이, 돈키호테, 맥도널드, 스타벅스, 맥스 밸류, 파칭코점, 슈퍼 센토, 아피타 그리고 이온.

이런 풍경을 ‘패스트 풍토’라고 부른다고 스가 씨가 가르쳐주었다.⁹

평론가 미우라 아쓰시(三浦展)의 조어인 ‘패스트 풍토’는 지방 농촌부가 교외화되는 동시에 기존의 중심 시가지가 공동화되면서 나타난, 고유의 지역성이 사라지고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균일한 체인점이 늘어난 풍경을 가리키는 말이다.¹⁰ 자동차 도로 양편으로 비슷비슷한 대형 쇼핑몰, 각종 체인점, 패스트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 편의점 등이 늘어서 있는 광경이 익숙한 고유명사의 나열로 표현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달려가면 거대 점포들이 사라지고 빛바랜 간판을 단 개인 상점들이 있는 오래된 거리로 들어선다.

“책, 편의점 또 망했네.”(9쪽)

‘나’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거리에 들어선 스가의 첫마디는 어디에나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지

9 山内マリコ, 『ここは退屈迎えに来て』, 幻冬舎, 2012, 8쪽. 이 소설집에는 「우리가 대단했던, 영광의 이야기」, 「이웃고 슬픈 여자아이」, 「지방도시의 타라 리펜스키」, 「네가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은 차가 없기 때문이야」, 「미국인과 리센느」, 「도쿄, 스무 살」, 「로퍼 소녀는 몸 같은 건 팔지 않아」, 그리고 R-18 문학을 수상한 「열여섯은 섹스할 나이」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 단편은 모두 같은 지방도시를 배경으로 하거나 그곳 출신인 인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등장인물과 시간적 배경이 다른 각각의 단편을 이어주는 것은 시이나라는 남성이다. 이하 본문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의 쪽수로 표기했다.

10 三浦展, 『ファスト風土化する日本: 郊外化とその病理』, 洋泉社, 2004.

역의 오래된 상점들이 파리를 날리는 ‘셔터 상점가’가 존재하고, 한편으로 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옷과 식료품, 대여 비디오에서부터 각종 생필품과 가구까지 편리하게 구매하고 어디서나 균질적인 맛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대형 점포들이 늘어서 있는 로드 사이드나 쇼핑몰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이어지는 재미라고는 없는 풍경” 속을 달려가고 있는 스가는 도쿄 아오야마(青山)의 갤러리에서 그룹 전시회를 열거나 친구들과 함께 인디즈 앨범을 내던 시대를 그리워하며 “내가 요 몇 년 동안 EXILE의 발라드를 가라오케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너 알겠어?”(10쪽)라고 푸념한다.

20년 전부터 시골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는 힙합을 들었다는 스가가 과거를 그리워하듯,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고등학교 동창인 사쓰키(サツキ)를 만나게 된 ‘나’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사쓰키와 함께 인기가 있던 남학생인 시이나(椎名) 패거리에 섞여 게임센터에 갔던 빛나는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지금은 고향에 돌아와 운전교습소에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시이나는 과거와는 달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십대 남자가 되어 새로 생긴 유아용품 체인점 니시마쓰야(西松屋)가 얼마나 저렴하고 편리한지를 늘어놓는다.¹¹ 그리고 ‘나’는 자신에게 “도쿄에서 뭐했어?”라고 물음으로써 희미한 아픔을 느끼게 했던 사쓰키가 시이나에게 다시 “오사카에서 뭐했어?”라고 묻는 것을 보고, 고향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사쓰키와 같은 사람이

11 야마구치 시를 중심으로 소비사회로서의 지방도시를 분석한 사다카네 히데유키는 지방도시의 생활과 밀착한 자동차는 도시 바깥에 주택이나 상업지가 배치되는 ‘교외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교외의 풍경을 바꾸어놓았을 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도시 공간이 공동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쇠퇴될수록 지방도시에서 자동차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는 상황을 “지방도시 자체가 자동차가 꾸는 꿈”이라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한다. 貞包英之, 『地方都市を考ふる: 「消費社会」の先端から』, 花伝社, 2015, 79~88쪽.

소설 곳곳에 주차장이 등장할 뿐 아니라 10년 동안 페이퍼 드라이버였던 ‘나’가 시이나가 일하는 운전교습소에서 운전 실습을 받기로 하는 장면은 각종 체인점으로 이루어진 지방의 무색무취한 풍경이 이른바 모터라이제이션을 통해 가능해졌음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설집의 「내가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은 차가 없기 때문이야」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차로 데리러 오곤 하는 좋아하지도 않는 남성과 러브호텔에서 지루한 섹스를 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어느 날, 늘 가는 러브호텔에서 견디지 못해 뛰쳐나온 그녀는 눈 쌓인 도로를 걸으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자. 누구라기보다 남자에게. 가고 싶은 곳에 자력으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도 빛을 주거나 빛지지 말고, 뒤탈 없이./일단은 차다. 이동수단이다. 형편없는 내게 필요한 것. 러시아 사람 눈에도 명백한. 면허를 따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중고차를 사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야”라고 다짐한다.

굳이 그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상상할 수조차 없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장면은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드러낸다. 이를테면 수록 단편인 「도쿄, 스무 살」에 등장하는 시이나의 동생이 그러하듯 도쿄에서 아무리 피로한 삶을 살더라도 “시골 따위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사람들, 도쿄 혹은 다른 대도시에서 U턴한 사람들, 그리고 나고 자란 지방 바깥으로 애초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

구라시키(倉敷)에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쓴 『지방에 틀어박히는 젊은이들』은 바로 이렇게 고향에서 자족적으로 살아가는, 소위 ‘마일드 양키’라 불리는 젊은이들에 주목한다.¹² ‘마일드 양키’란 “상·경” 지향이 없으며, 고향(地元)에서 견고한 인간관계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동네에서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광고회사에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일을 하는 하라다 요헤이(原田曜平)가 만들어낸 말이다.¹³ 이온과 같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쇼핑몰을 좋아하고 좁은 반경 안에서 어릴 적부터의 고향 친구들과 어울리며, 상향 의식이 없는 대신 그렇게 소득이 높지는 않아도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여기서 고향이란 고유한 지방색을 띤 장소라기보다는 과거와 다름없는 생활의 배경으로서 어느 곳으로도 대체 가능한 곳이라는 점에서 패스트 폰토와도 맥이 닿아 있다. 『지방에 틀어박히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존재를 실제 조사에서 확인하는데, 그에 따르면 고향을 떠나 도쿄로 간다는 청춘 영화의 흔한 플롯에서 볼 수 있듯 과거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지루한 지방의 젊은이들이 빛나는 대도시를 동경했다면, 지루한 지방과 자극적인 대도시라는 기존의 이항대립 구도 속에 지금은 ‘적당히 즐거운 지방도시’라는 선택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교외의 패스트 폰토를 이루는, 이온으로 대표되는 대형 쇼핑몰이다. 소설은 정확히 이 지점을 건드린다. 바로 이러한 장소에 새로 생긴 라면 가게에 취재를 하러 간 스가와 ‘나’

12 阿部真大, 『地方にこもる若者たち: 都会と田舎の間に出現した新しい社会』, 朝日新聞出版, 2013.

13 原田曜平, 『ヤンキー経済: 消費の主役・新保守層の正体』, 幻冬舎, 2014.

가 가게 벽면을 빼곡히 채운 붓글씨로 된 ‘포엠’을 보는 장면이다.

도쿄? haha! 이곳은 도쿄가 없는 세계
나는 이 마을에서 산다
동료들과 이 마을을 지킨다
우리 고향(地元) 최고!
도쿄 따위는 똥이나 먹어라!
우리의 마을에 사는 사랑스러운 너희에게 최고의 한 그릇을 먹게 해주지!

마일드 양키라는 개념을 그대로 빗어서 만든 듯한 라면 가게 점원은 마음에 드는 포엠이 있으면 노트에 ‘앤서 송’을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면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말한다. 그런 그에게서 노트를 받은 스가는 “나는 도쿄에 갔는데 불만 있나!?! 여기서 즐겁게 지냈다면 애초에 아무 데도 안 간다고”라는 답가를 휘갈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도쿄가 없는 세계’를 말하는 방식으로 도쿄의 존재를 드러내는 지방 젊은이의 모습이다. 즉 이 소설에서는 스가나 ‘나’는 물론 이거니와 ‘상경 지향’이 없는 라면 가게의 젊은이조차도 도쿄와 지방이라는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것은 소설집의 제목인 “여기는 지루해, 데리러 와줘”가 분명히 드러내는, 지루한 ‘여기’의 바깥 혹은 상층을 향한 지향과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방도시가 소비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그럭저럭 파라다이스’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대도시와의 미세한 문화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에도 무관하지 않다. 편리할 뿐 아니라 그럭저럭 좋은 물건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각종 체인점과 가라오케, EXILE과 같은 지극히 대중적인 가수, 로드 사이트에 위치한 라면집 벽에 붙은 낮 뜨거운 포엠의 반대편에는 세련된 음악이나 스가가 경험했던 아오야마의 갤러리, 트위터의 타임라인에 흐르는 “어디어디에 가서 뭐, 뭐를 먹었다.” 즐거웠다 맛있었다, 멋졌더라는 도쿄의 이야기가 있다. 대중소비의 일용품(commodity)화=패스트 풍

토'와 '일용품화가 불가능한 고감도 소비'를 나누고, 지방의 쇼핑몰에서 아무리 저렴하고 적당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한들 어떠한 새롭고 세련된 취향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그럭저럭 파라다이스'의 한계를 지적하는 나카자와 아키코(中沢明子)의 논의 또한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¹⁴

지방의 삶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도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문화는 도쿄 혹은 그것이 대표하는 글로벌한 시선을 통해 '촌스러운' 것으로 차등화된다. "중학교 시절부터 음악 잡지를 다치는 대로 읽고 지식과 CD만큼은 잔뜩 있"어서 시이나에게 "뭐든지 다 알아"라는 평을 들던 친구 엔도(遠藤)를 보며, "애초에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은 대체로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적고,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식이 있지만 하면 운명의 상대라 믿고 집착한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네가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은 차가 없기 때문이야」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도쿄와 똑같은 물건이 "훨씬 간편하게 손에 들어"오는 지방도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바깥'이야말로 문화적인 기준인 것이다.¹⁵ 이러한 의미에서 도쿄의 부재는 사실상 준거점으로서 편재하는 도쿄의 이면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 문화적인 소수로서 살아온 스가가 도쿄에서 탈락하고 U턴했다, 「이윽고 슬픈 여자아이」에는 소녀 잡지의 모델로 인기를 누리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도태되어 스물 다섯이 되기 전에 남몰래 고향에 돌아와 결혼을 갈망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는 스타벅스에서 바리스

14 中沢明子, 『埼玉化する日本』, イースト・プレス, 2014.

15 나카자와 아키코(中沢明子)와 하이미즈 겐로(速水健朗)의 대담 「'사이타마'로 보는 지방과 소비의 미래」는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드러낸다. 사람이 많고 집적이 있는 도시부 쪽에서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져진 뒤에 이것이 확산되면서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는 구도 속에서 지방은 다수파적인 소비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이 '하류'의 대중적인 문화 코드는 다름 아닌 촌스러움이다. "세련된 R&B를 직접 작곡하고 편곡하면서 잔하고 나타난 우타다 히카루와 마치다(町田)의 유로비트 전문 대역 레코드 가게에서 출발한 에이벡스의 뮤즈,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길을 걷은 두 사람이지만 이제 우타다는 활동을 쓴 지 3년쯤 됐지요. 그리고 줄곧 흥백에서 낙선하면서도 계속 열심히 해온 하마사키가 이기는 것이 현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역시 마일드 양키의 승리랄까, 촌스러운 것이 승리하는 시대..." <http://www.gentosha.jp/articles/-/3335>(검색일: 2016. 10. 30) 참조.

타로 일하면서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기술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일자리로 고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해외는 고사하고 이 도시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 한편, 「네가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은 차가 없기 때문이야」에서도 오사카로 간 시이나에 대해 “하지만 시이나 같은 타입은 얼마 안 가서 이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계속 도시에서 살 만한 타입이 아니잖아. 취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사하다니 너무 무모하고. 얼마 안 돼서 막히면 돌아올 거야”라고 평하는 엔도에 대해 주인공 ‘나’가 “자기도 대학 나오자마자 곧장 도쿄에서 후퇴한 프리터 주제에”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소설이 이렇듯 이동(하지 않음)을 그려내는 방식은 지방도시에는 ‘이동하는 인생’과 ‘이동하지 않는 인생’을 나누는 특수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지적¹⁶과도 부합한다. 즉 도쿄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을 굳이 버리고 이동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자산을 가진 사람에 한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러한 자산이 없는 사람은 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소설에서 이러한 도쿄라는 기호가 성공 혹은 부와 결합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점은 어찌면 당연하다. 상경한 시이나의 여동생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도쿄 세타가야(世田谷)의 가정집에서 “타이트스커트를 입은” 미인 어머니와 “로코코풍 소파”, “귀족 같은 요크셔테리어”, “대형 평면 텔레비전”을 보고 하는 감탄은 다름이 아니라 “도쿄, 굉장해”인 것이다.

3. 오사카는 다른 나라

『여기는 지루해, 데리러 와줘』가 이렇듯 굳이 어디라고 특정할 필요도 없이 획일적인 지방도시의 풍경을 그려냈다면, 마키메 마나부의 『프린세스 도쿄

16 貞包英之, 『地方都市を考える: 「消費社会」の先端から』, 102~105쪽.

토미』¹⁷는 이와 반대로 획일화된 패스트 풍토가 아니라 고유한 지방색을 갖춘 장소로서 중앙과 대치하는 오사카를 부각시킨다. 마키메 마나부는 2007년에 출간된 전작 『사슴남자 아오니요시』(鹿男あをによし)에서 나라의 사슴, 오사카의 쥐, 교토의 여우가 지진을 일으키는 땅속의 거대 메기를 잠재우기 위해 1800년 동안 60년에 한 번씩 의식을 행해왔고, 나라의 고등학교에 임시 교사로 부임한 주인공이 이 의식에 필요한 ‘눈’을 찾아 고군분투하여 대지진을 막는다는 이야기 속에 간사이 일대의 지역성을 녹여낸 바 있다. 2009년 작인 『프린세스 도요토미』는 이 같은 지역성의 상상에서 더 나아가, 오사카에는 실은 400년에 걸쳐 비밀리에 유지돼온 ‘오사카국’이 존재한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이야기는 회계 감사원에서 일하는 마쓰다이라(松平), 도리이(鳥居), 아사히(旭)가 현장 조사를 위해 오사카로 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사카 부(府)의 회계 감사를 마친 이들은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각종 단체를 감사하는데, 그중에는 사단법인 OJO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실존하는 가라호리(空堀) 상점가에서 여자아이가 되고 싶어 세일러복을 입고 등교했다가 상급생인 하치스카(蜂須賀)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나다 다이스케(真田大輔)라는 중학생 소년과 그의 소꿉친구인 차코(茶子)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테레오타입적인 키워드를 쓰지 않고, 어디까지나 일상 레벨의 오사카를 겹겹이 쌓아감으로써 독자에게 오사카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를 자문했던 작가의 의도대로, 소년소녀의 생활 배경은 오사카에서는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덜 유명했던 가라호리(空堀) 상점가다. 단, 다이스케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오사카 이미지대로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粉もん)인 오코노미야키(お好み焼き) 가게를 운영하고, 오사카성의 물 없는 해자(空堀) 위에 만들어진 상점가는 오사카의 등뼈인 우에마치 대지(臺地)에서 뻗어나오는 갖가지 고갯길을 품고 있는 장소다.

17 万城目学, 『プリンセス・トヨトミ』, 文藝春秋, 2009.

소설에서 오사카는 먼저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낸 각종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온 조사관들의 눈으로 표상된다. 신오사카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탄 세 사람은 시내를 흐르는 물줄기를 보는데, 이는 “과연 물의 수도 오사카”라는 해설로 이어진다. 명랑하면서도 어딘가 성가신 성격인 도리이는 오사카에 왔으니 당연하다는 듯이 다코야키(たこ焼き)와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며, 오와라이(お笑い)의 본고장 오사카라는 알려진 이미지대로 오사카 부에서 절반이 국가의 간접 보조금인 조성금을 70% 받고 있는 사단법인 OJO란 ‘오사카 조크 기구’의 약자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소설의 한 축은 이 OJO라는 수수께끼의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사관들은 결국 연락이 닿지 않은 OJO의 국고 보조금 사용 용도를 검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묘소에 들르기 위해 남은 마쓰다이라를 제외한 두 명의 조사관은 도쿄로 돌아간다. 한편 오사카에 머무는 동안 OJO와 연락이 닿은 마쓰다이라가 안내되는 곳은 도쿠가와(徳川) 가문 이 허물고 다시 지은 오사카 성의 지하에 있는, 진짜 오사카 성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오사카의 남성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후예들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비밀리에 지켜온 오사카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¹⁸

소설의 다른 축은 여자아이가 되고 싶은 소년 다이스케와 차코가 벌이는 소동이다. 다이스케를 지키려던 차코가 하치스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사무실로 쳐들어가는 바람에 이들은 오사카 부 경찰서로 가게 된다. 사소한 오해로 도요토미의 후예인 차코를 경찰에 넘긴 사람이 회계 조사관인 도리이라고 생각한 오사카국의 총리대신이자 다이스케의 아버지

18 소설에서 오사카국의 비밀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승되는데, 이는 여성들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배려로 그려진다. 단, 소설의 말미에 이르면 오사카의 여성들은 처음부터 남성들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대로 모른 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여성들은 이 사실을 ‘오사카 사람’이기만 하다면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고, 따라서 다이스케 또한 여자아이로서 이를 전해 들게 된다. 오사카국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외하는 듯했던 소설은 이렇듯 ‘오사카인’이라는 정체성이 생물학적·사회적 성별의 차이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부의 차이를 초월하는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라.

인 사나다 고이치는 마쓰다이라에게 “우리는 일어서겠다”고 선포한다.

오사카국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도쿄에서 온 회계 감사원 조사관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이후에 전개되는 사태다. 즉 오사카 곳곳에 있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표주박이라는 신호를 통해 오사카국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음을 전 오사카에 알리는 것이다. 다음날 오사카의 모든 시내 교통은 정지한다. 그리고 남성들을 가득 태운 전차가 그들을 모두 오사카 성으로 실어 나른다. 이렇게 해서 오사카 성을 가득 메운 오사카 사내들은 부 청사 앞에서 열리는 마쓰다이라와 오사카국 총리의 회담을 지켜본다.

도쿄 혹은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발견하는 오사카가 물의 수도, 오와라이나 농담, 오코노미야키, 오사카 성 등이라면, 오사카국이 근거하는 진짜 오사카는 우선 지하에 가라앉은 “과거 오사카 성의 흔적”이고 오사카국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각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퍼뜨리는 남성들의 생활공간 자체다. 역사와 생활, 이는 패스트 풍토라는 말이 보여주는 지방색이 탈각된 교외의 풍경과도 다르지만, 작가는 이를 도쿄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가 전파하는 오사카 이미지와도 구별하려고 한다. 오사카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551호라이(蓬萊)’에서 돼지고기 찜빵을 산 노인은 내일 날씨를 알기 위해 “나니와(なにわ)의 에펠탑” 쓰텐카쿠(通天閣)를 바라보다 이번이 다했음을 깨닫는다. 오사카 남쪽 덴노지(天王寺) 역 앞에는 덴노지 공원이 펼쳐져 있고 그 저쪽 편에 보이는 쓰텐카쿠는 실은 꼭대기의 네온 색깔로 날씨를 알려준다는 해설이 함께 등장한다. 한 젊은이는 우메다(梅田) 역의 ‘빅맨’이라 불리는 커다란 전광판을 보고 오사카국에 위기가 다했음을 아는데, “커다란 서점”, 즉 기노쿠니야(紀伊国屋) 입구 옆에 있는 빅맨과 코빅맨은 항상 서로 만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소다. 물론 둘러싸인 다이쇼(大正) 구에서는 아직도 다른 구로 가기 위해 오사카 시가 운영하는 나룻배를 타야만 하며, 그 나룻배도 당연히 이번을 알리는 표주박을 후미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다.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난바(難波)의 ‘가니도라쿠’(カニ道楽) 식당 간판에 붙은 거대한 게의 집게 다리에도, 남자가 달리고 있는

글리코(グリコ)의 네온 간판에도 표주박이나 그 그림이 달린다. 551호라이와 쓰텐카쿠, 가니도라쿠와 글리코의 간판 등 이 모든 것은 관광이라는 시선 속에서 오사카를 대표하는 이미지와도 무리 없이 겹쳐지지만, 바로 그러한 점에서 대도시로서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지방도시의 획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사카만의 풍경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결코 감지할 수 없는 오사카국의 암호가 숨어 있는 셈이다.¹⁹

오사카국의 200만 명의 남성들과 상대하는 마쓰다이라는 회계 검사원으로서 오사카국으로 흘러들어오는 5억 엔에 이르는 국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으며 회계 검사원은 오사카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는 메이지(明治) 정부와 비밀 회담 이후로 줄곧 일본 행정 내로 편입되면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사카국을 처리하고 싶어 했던 중앙 정부의 의사와도 뜻하지 않게 공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여든 오사카 남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게 국가의 많은 세금을 써가며 당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가? 이런 건 그저 공갈에 지나지 않아”라고 냉정하게 말하던 마쓰다이라는, 오사카국에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일본국 총리의 연락을 받고도 결국 오사카국의 존재를 묵인한다. 도요토미가의 후예인 ‘왕녀’(王女 즉 OJO)의 안전에 위협이 닥치면 오사카 곳곳에 신호가 나타나고 그것을 본 남성들이 정해진 시각에 오사카 성에 모이는 시스템 자체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단법인 OJO는 보조금을 쓰고 있는데, 이는 바로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약속임을 마쓰다

19 여기에서 작자인 마키메가 말한 ‘스테레오타입적인 키워드’와 ‘일상 레벨의 오사카’의 구분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쓰텐카쿠나 도톤보리(道頓堀)를 상징하는 화려한 간판 같은 것이 실은 관광 명소이자 미디어 속의 오사카와도 “겹쳐진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가령 히로키(江弘毅)에 따르면 미디어 속의 오사카는 “도쿄라는 한 점에 집중된 미디어의 시선”으로 그려지는데, 특히 ‘오와라이’의 인기가 확산시킨 ‘재미있는 오사카’는 바보(あほう)나 성격 급함, 품위 없음, 아줌마, 조직폭력배(ヤクザ), 난잡함, 지저분함, 질 나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바깥에서 오사카를 향하는 시선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오사카 사람들 또한 미디어가 그려내는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를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고는 이를 “더 현민 쇼(ザ県民ショー)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얼마든지 ‘쇼’로서 즐길 수 있는 고유한 지방성 자체가 외부의 시선을 통해 발견되고 호명된 것이기도 함을 잘 보여준다. 江弘毅, 『街場の大阪論』, パジリコ, 2009.

이러가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생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해 받지 못했을 뿐, 마쓰다이라 또한 ‘오사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소설 속에서 오사카국은 국가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회계 감사원을 매개로 중앙 정부와 명백하게 대립하고, 결국 마쓰다이라와 다이스케와 같은 ‘오사카의 아들들’이 일본의 일부이면서도 그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오사카라는 전통을 상징적으로 지켜낸다. 내부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오사카의 기호들과 이를 묵묵히 유지해 나가는 보통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날 오사카에서 발생한 남성들의 대이동과 시내 교통의 희한한 운행 방식, 오사카 성 주위에 모여든 기이한 인파에 대해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하는 오사카의 지역 언론이다. 당일에는 병원이나 중요 관공서를 제외하면 오사카 내의 모든 고정 전화 및 휴대전화의 회선, 인터넷 회선도 불통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외부와의 연결을 분명히 잘라내는 경계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오사카라는 공간인 셈이다.

이 소설이 그려 보이는 것은 이렇듯 일본국의 행정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기억 속에서 유지되는 오사카라는 지방의 고유함이다.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량한 기질과도 공명하고, “조정(お上)을 싫어하고 의리와 인정을 좋아하는” 오사카 사람 특유의 성격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들은 외부인인 도쿠가와 가문에 아첨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으며, 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지역성의 상징인 도요토미 가문의 후예를 지켜왔다. 종종 이야기되곤 ‘민도’(民都)로서의 오사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려낸 소설은 흔치 않을 것이다.

사철(私鉄)을 중심으로 발달한 오사카 철도망과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생활 문화권의 역사를 훑은 『민도 오사카 대 제도 도쿄』에서 하라 다케시(原武史)는 “도쿄에서 보면 하나의 지역에 지나지 않는 ‘사철 왕국’은 확실히 공간적으로는 내셔널리한 ‘제국’ 내부에 있었지만 거기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지는 않았고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했다”라고 쓰는데,²⁰ 일본이라는 내셔널리한 경계 내부에 있으면서도 미디어와 교통, 통신 등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이 ‘왕국’은 소설 속의 오사카국과도 쉽게 겹쳐진다. 하라에 따르면, 이렇게 한때 인구나 경제에서도 도쿄를 앞지르며 사철 연선을 중심으로 오락 문화, 주택 문화가 발달했던 오사카는 쇼와(昭和) 시대로 들어가면서 결국 중앙의 제국으로 편입된다. 명백히 글로벌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쿄가 대표하는 중앙적인 것과의 대립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규정해온 오사카의 정체성이 드러난 이 소설의 상상이 ‘오사카 도(都)’ 구상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를 통합하여 도쿄 도와 같은 오사카 도를 만들겠다는 이 구상은 경제적 기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오사카의 복권(復権)이라는 목표와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받아왔다.²¹ 가령 오사카 도 구상을 대도시의 자율성을 둘러싼 오랜 역사 속에 위치시키는 스나하라 요스케(砂原庸介)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도 도쿄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오사카 도 구상은 일본 내에서 도쿄 외의 대도시를 특별한 것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라는 매우 중대한 선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말할 필요도 없이 도쿄—의 배후지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이는 지속 가능한가”²²라는 물음은 도쿄라는 유일무이한 준거점을

20 原武史, 『「民都」大阪対「帝都」東京: 思想としての関西私鉄』, 講談社, 1998, 28쪽.

21 나가오 겐키치(永尾謙吉)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오사카의 전철을 밟는가”, “‘밀바다’ 오사카 경제에 배운다”라는 식으로 경제지에서는 오사카를 일본 경제의 부(負)의 집적지로 보며 오사카의 경제적 기반 침하를 이야기해왔다. 長尾謙吉, 『經濟的地盤沈下と大阪都構想』, 『現代思想』 40(6), 2012년 5월, 靑土社, 120쪽.

또한 『후쿠이 모델』에서도 기반 침하에서 탈출하겠다는 욕망을 하시모토 도루(橋本徹)에 대한 오사카 사람들의 열광과 연결시키며 “오사카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가”라고 자문한다. “하시모토 도루가 이끄는 ‘유신회’가 가져온 열기는 외부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녁 무렵 대중식당에 가면 텔레비전 뉴스가 하시모토 시장의 정례 회견을 비추는 순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젓가락 움직임이 딱 멈추고, 지그시 텔레비전을 바라본다. 하시모토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역시 하시모토밖에 없는 거 아이가”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쪽에서는 지방 신문에 하시모토를 비판하는 투서가 게재되면 신문에 ‘죽어라!’라는 욕설 전화가 빗발친다.” 藤吉雅春, 『福井モデル: 未来は地方から始まる』. 한때 분명히 존재했던 이 같은 열정은 오사카국을 지키기 위해 오사카 성으로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찌면 겹쳐지지 않는가?

22 砂原庸介, 『大阪—大都市は国家を越えるか』, 中央公論新社, 2012 참조. 스나하라는 오사카도 구상이 오래 전부터 이어진 대도시 특유의 문제를 중핵으로 ‘오사카 유신회인가, 그 외인가’라는 선택지를 유권자에게 들이댔다고 보고, 이는 특정 이익단체에 의거하지 않고 오사카라는 대도시 전체의 이익을

서의 이민을 당연한 듯이 배제함으로써 성립한 것이 도쿄와 대치되는 오사카의 이러한 지방성이었듯, 오사카국의 붕기에서는 현재의 오사카를 이루는 다양한 이동의 현상이 소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사카성을 둘러보던 마쓰다이라에게 스쳐가는 사람들 입에서 들리는 것은 한국어나 중국어, 영어와 같은 이국적인 말뿐임을 깨달을 때, 소설은 “뜻밖에 국제적인 색깔이 짙다”라는 말로 이 경험을 언어화한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도 결코 적지 않았던 오사카의 외국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오사카 성을 견학하려던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견학 투어가 중지되고 시내 교통 기관이 마비되는 바람에 난처한 하루를 겪었고, 그중 혼자 호텔에서 나와 걸어다니다 우연히 오사카성에 몰려든 인파를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한 대만인 관광객이 한 명 있었지만 그 영상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이를 제외하면 소설에서 관광객들은 오사카국에서 배제된 무수한 외부인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행위자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생활인은 소설에서는 아예 상상조차 되고 있지 않다. 중앙에 대한 지방으로서의 오사카를 발견하는 것은 그곳의 좀 더 잡다한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과정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²⁶

26 이는 오사카의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을 오사카라는 지역성으로 균열이 나 있는 것을 ‘공개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다. 베스트셀러인 『교토를 싫어하는 사람』(京都ぎらい)에서 교토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지역 차별을 꼬집은 이노우에 쇼이치(井上章一)는 『간사이 사람의 정체』에서 전형적인 오사카 이미지나 시중에 유통되는 간사이론(論), 오사카론 등을 비판한다. 여기에는 그가 교토의 어느 직업 훈련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이 과정에서 원고지에 글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과 자신 그러니까 ‘같은 간사이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을 경험한다. “그 점에서는 다른 지방에 사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 쪽이 말도 통한다. 가치관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자란 편집자에게도 그만큼의 단절감은 생기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비하면 국경을 넘은 카이로 대학 연구자와 나 사이에 더 간극이 적다.”井上章一, 『関西人の正体』, 朝日新聞出版, 2016, 245 쪽.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이 같은 지역 차, 계층 차가 일상불란하게 움직이는 ‘오사카국 국민’ 남성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있는 바깥을 보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작가는 오사카국을 상상하기 위해 이러한 내부의 외부를 지워버린 셈인데, 이는 글로벌한 대도시로서의 오사카를 도쿄에 맞서는 하나의 지방으로 상상하는 것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인지도 모른다. 도쿄 집중이 심화되며 꽤 오래 전부터 경제적 기반 침하가 이야기되는 가운데 오사카 도라는 구상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근래의 오사카에서 들려오는 배타성에 대한 소문은 단순히 우연일까?

그렇다면 장소의 바깥까지 끌어안는 지방 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까?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것까지 포함하여, 그것이 특정한 지역성으로 재발견된 곳이든 어디에나 편재하는 소비의 공간이든 장소 자체가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축이 되는 소설에서는 결국 바깥을 어떻게 쓰고 읽을 것인가가 물음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는 근대소설이라는 장치를 매개로 한 국민 공동체라는 상상을 교란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개입이 소설을 통해 가능할 까라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다.